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질적 접근: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가정의 이해와 대처*

Qualitative Approach on Family Resource Management :
Individual Families'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n Economic Crisi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부 교수 고선강**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s
Associate Professor : Sun-Kang, Koh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연구 배경 및
관련연구 동향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III. 연구 방법 | |

〈Abstract〉

In Korean society, a housewife and mother often plays the role of family resource manager. In 2008, the newly appointed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new direction in social policies, including family policy, that is, “active social welfare”. According to “active social welfare”, family policy focuses on a preventive policy and a family needs-oriented policy. In other words, newly established family policies should reflect parents’ needs in their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this economic downturn, famil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atisfy parents’ needs to overcome their own family’s economic crisis.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recipients’ real voices and their needs: they need the government’s help supporting their effort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es within their families.

Key Words :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가정자원관리(family resource management), 예방적 정책(preventive policy)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고선강 (skoh@sungshin.ac.kr)

I. 문제제기

2008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우리나라 경제도 주가폭락, 환율급등 등의 금융시장 불안과 수출악화, 내수침체 등의 경제위기의 징후들을 나타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별가정은 2008년 상반기부터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8년 2/4분기부터 가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2/4분기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0.16%감소하였다. 소비지출 항목의 증감 방향을 비교했을 때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던 1997년 4/4분기와 유사한 흡사한 형태를 보였다(박종규, 2008).

우리사회는 1997년 IMF 관리체제를 통해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이 개별가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경제구조 조정에 의한 가장의 실직, 평생직장 개념의 해체로 인한 가계소득의 불안정성 심화, 가족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원인으로 지목 받았다. 장기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과 고용불안정성의 증가는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계층이 있는 반면,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가치상승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진 계층도 있어 양극화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박상우·김성환, 2007; 양세정, 2002). 이성균(2008)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계층의 양극화 확대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데, 경영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이 직업구조상 소득양극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직의 상대적 저소득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경우, 배우자가 미

취업자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여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박상우·김성환(2007)의 연구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가구의 특징을 근로빈곤층의 확대라고 하였으며, 빈곤가구의 약60%가 근로빈곤층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경제위기가 유발된 이유와 여러 가지 경제지표 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다른 성격을 보인다. 특히 1997년 보다 양극화가 확대되었고, 근로빈곤층이 늘어났으며,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개별 가정이 경험하는 경제위기의 무게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과는 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가정이 경험한 외환위기를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였다(이연숙, 1998; 곽인숙·송효숙·김경애, 1999; 김혜연·김미성, 2001; 정순희·최혜경, 2000; 양세정, 2002; 이기영·윤미림, 2001; 김양희 외, 1999).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개별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회고적인 방법으로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 연구하거나 외환위기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예, 실직가정)에 대한 대처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주체에 맞는 양적조사연구를 수행했거나,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에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관리학에서 대규모의 양적자료를 분석하여 경제위기 전후 가정생활 비교,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가정문제에 대한 해결 등의 연구는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적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별가정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가를 들여다보는 연구도 일상생활의 생생함과 실제 생활세계에 적용가능한 정책제언을 위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가정관리학 연구는 개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연구할 책임이 있으며, 경제 위기 하에서도 개별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지구적 범위에서 발생한 경제의 위기 상황을 현재 대한민국 서민 가정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속화된 양극화의 한쪽 편에 있는 비정규직 가정, 가장의 실직, 사업 침체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경험한 가정,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가정의 구성원이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연구 배경 및 관련연구 동향

1. 경제위기와 가정생활

가정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 가정의 웰빙은 소득원의 수, 소득 수준,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가정생산, 가정의 규모나 구조에 의한 가정의 경제적인 요구수준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Voydanoff, 1990). 고용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확산, 가족원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의 경험, 자산의 상실이나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상실한 경험 등은 가정생활의 매우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준다.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우 고용과 소득은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적이 가족의 적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실직은 부부관계의 스트레스 증가, 의사소통 수준 감소, 잦은 논쟁, 낮은 응집력, 불화 등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iem & Liem, 1988; Broman, Hamilton, & Hoffman, 1989; Larson, 1984).

가정의 소득은 경제적 제약을 매개로 결혼 만족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생활의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제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구성원의 일자리 찾기를 통한 소득의 확대, 비공식적인 가정생산물 증가와 지출감소를 들 수 있다(Voydanoff, 1990).

가족 중 주요한 소득원이 실직을 하는 경우 다른 가족원들은 시장노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Rayman, 1983),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생산물을 확대하거나 다른 가정과 교환하는 것으로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외식을 줄인다거나 물품구매를 줄이고 가정에서 생산물로 이를 대체시킨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정생산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을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한다(이기영·윤미림, 2001).

2. 관련연구 동향

국가적 사회적 경제위기가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1940년에 발표된 미국의 대공황과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관한 Bakke의 연구(Conger et al, 1990 재인용) 이래 세계의 여러 지역의 경제위기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미국의 연구들은 1930년대 대공황, 80년대의 경제위기와 미국 중서부의 농업위기 상황 하에서 개별 가정은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결과적

으로 경제위기 시기의 가족 해체 증가, 건강문제 증가 등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했다.

1930년대 초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대한 연구로서 Liker와 Elder (1983)는 소득의 상실은 10년 안에 결혼의 긴장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실업, 저소득,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험 등과 같은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그 당시는 물론 향후 결혼의 긴장감과 깊은 관련이 있고, 결혼에 대한 긴장감은 결국에는 별거와 이혼과 같은 결혼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 사이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불일치와 남편에게서 나타나는 긴장, 짜증스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남편의 실업과 소득의 감소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인들이 가출을 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자체 보다는 남편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연관성이 높다고 했다.

Conger 등(1990)은 1980년대 미국의 농업위기를 겪은 지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제약이 결혼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배우자의 위협성과 다정함이 결혼의 질을 통해서 결혼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압박, 남편의 직업 불안정성, 소득 등의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공격성과 다정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은 정부보조금 수혜,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치료를 미룬 경험 등과 같은 경제적 제약 상황경험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제약 상황 경험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다정함은 감소시켰다.

동구유럽의 민주화와 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전이과정에서 개별 가정은 경제적 불확실성

과 불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Hraba 등(2000)은 체코가 민주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개별가정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 가정의 스트레스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압박은 남편과 아내의 화를 잘 내는 성향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남편이 가정에서 화를 잘 내는 것은 객관적인 소득, 교육수준이 아니라 가정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이 개별가정의 가족관계, 부부관계의 질, 가족의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사회경제적 상황의 급변이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1970년대 미국의 주택공급 부족상황에 대한 개별가정의 대응을 설명한 주거 조정 모형(housing-adjustment model)은 개별가정의 교육과 여가, 식생활, 교통수단 이용 등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어 연구되었다(Morris & Winter, 1975; Volker & Winter, 1988; Winter & Wolf, 1989). 미국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위기(멕시코), 사회체제의 변화(폴란드)가 있었던 지역에도 적용되었는데, 개별가정이 가정의 웰빙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조정(adjustment)하고, 변화에 어떻게 적응(adaptation)하는가를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1997년 IMF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들이며, 경제위기와 가정의 스트레스, 경제위기에 따른 가정의 소득변화, 소비지출변화, 경제위기 전후의 가정생활의 변화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미숙 등(2000)은 1998년에 부부236쌍을 대상으로 실시한 IMF 관리체제 이후의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부의 생활의 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객관적인 경제적 긴장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과 부부 갈등의 증폭이 생활의 질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두경자(1999)는 1997년 IMF 관리체제 이전과 이후의 가계의 소비수준변화를 연구하였고, 강이주·성영애(1999)는 IMF 관리체제 이후 가계소득감소 경험이 가계의 지출감소 노력, 자산이용노력, 소득창출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양세정(2002)은 IMF 관리체제에서 가계의 소득감소 경험이 가계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가계의 대응전략은 어떠한가를 노동패널 1996년 자료와 1998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1996년과 비교했을 때 1998년에 소득이 감소한 가계와 소득이 증가한 가계를 비교하였는데, 소득감소가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전체 소득감소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소득증가가계는 금융소득의 높은 증가율이 소득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소득감소가계는 모든 지출비목에서 소득탄력성이 양의 수치를 나타내 소득감소와 함께 모든 지출비목에서 지출규모를 줄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별 소득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내구재구입비, 휴가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등은 1이 넘는 높은 소득탄력성을 나타냈으나, 자녀교육비와 경조사비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0.5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출을 쉽게 줄이지 않는 비목으로 나타났다.

곽인숙 등(1999)은 1997년 IMF 관리체제에서의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IMF 관리체제의 1년 전과 1년 후의 가정생활을 생활영역 별로 비교 연구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이 가정생활의 한 영역을 깊이있게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

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가정생활을 의생활, 식생활, 가정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주부가 느끼는 각 영역의 생활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의생활 영역은 의복구입, 의생활관리, 의복구입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조사하였고, 식생활 영역은 식품군별 섭취량의 변화, 식생활 행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가정관리 측면에서는 소비지출의 변화, 가족관계와 가정자원관리 행동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의 결속력은 IMF 관리체제 이후 더 강화되었고, 주부의 계획적 관리행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정이 지향해야 할 생활표준을 연구한 이연숙(1998)의 연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가정의 대처전략을 가정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IMF 경제위기와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가정의 가족관계, 소비지출의 변화 등 가정생활의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전반적인 가정자원관리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연구한 곽인숙(1999)등은 가정관리자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으나 여러 영역 중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데 그쳤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정생활의 관리자인 주부가 경험하는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가정자원관리 전략을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개요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주부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혹은 경험하는 경제적 위기를 기술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실천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실제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정의 관리자들과의 요구를 정책 입안자에게 직접 예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가정의 가정관리자인 주부와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느끼는 위기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경제침체와 위기 상황에서 개별가정의 생활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정관리의 주체인 주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가정의 대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에서 느껴지는 생활의 어려움, 이들이 겪어지고 있는 삶의 무거움, 그럼에도 이들이 보여 주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교육을 통한 가정의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별 가정의 생활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가정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특정지역에 한정시켰고,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나 간접 면접을 배제하고 철저히 연구자의 직접 대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나 그 외 사항은 연구 대상의 동의를 얻어 논문에 포함시켰다.

2. 지역특성

연구 대상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강북구이다. 삼각산 기슭의 마을로 단독 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택가이며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아직 살아 있는 지역이다. 연구 대상 가정은 이 지역에서 최대 19년 최소 3년 거주한 가정으로 서로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이다. 연구 대상 가정은 아니지만 주요 정보제공자 (key informant)인 윤정희씨는 30년간 이 마을에 거주하였고 이 마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에 따르면 이 마을은 윤정희씨가 처음 이사온 30년 전에는 신흥 주택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정체 지역으로 남았다고 한다. 장기 거주자가 많고, 외부에서 최근에 들어 온 가정은 이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으나 뜨내기 가정이 드물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 기능이 살아 있으므로 쉽게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자료수집 방법

이들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접은 2008년 9월~12월에 이루어졌다. 주요 정보제공자 윤정희씨의 소개로 연구대상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동반한 가벼운 비공식적인 만남에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하였다. 이후에 각기 가정으로 방문하여 각각 40분-1시간 사이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의 분위기, 자녀들과의 관계 등도 관찰하였다. 보조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주부들에 대한 면접과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들에 대한 면접을 따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은 먼저 연구대상

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기초조사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였다. 후에 주제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의 질문은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개략적인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경제위기에 따른 가정관리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하였다. 광범위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 연구자가 다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서 가계부, 다이어리, 일기장, 생활계획표 등 면접내용과 연관된 물품들을 연구대상자와 함께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답변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았고 면접내용은 녹음한 후에 전사하였다.

자료수집과정의 모든 내용은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방문한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분위기,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Taylor, & Bogdan (1998)과 Auh et al. (2006)을 참고하여 인터뷰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인터뷰 자료에서 주제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질문과 답변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주요어들을 찾고, 찾아낸 주요어들을 대주제로 묶는 방식으로 주제를 추출하였다.

4.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가정자원관리에 있어서 유사한 요구를 갖는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자녀를 둔 양부모가정의 주부로 한정하였다. 전일제 취업주부는 배제하였으며 전업주부 또는 파트타임 일을 하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주부 스스로 서민층,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을 선택하였고, 최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정을 포함시켰다. 총

9명의 주부와 1명의 주요정보제공자를 인터뷰하였다. 9명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 최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으로 한현미씨, 최성은씨, 정희영씨의 가정이 있다. 한현미씨는 18세~10세 사이의 4자녀를 둔 전업주부이다.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2층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생활비로 월 250만원을 한현미씨에게 주면 그 범위 안에서 가정살림을 꾸려간다고 한다. 2008년 상반기에 남편의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나 회사경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최성은씨는 면접자 중 가장 장시간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10살, 8살 여자아이들의 어머니이다. 남편은 2008년 초까지는 인쇄업을 하였으나, 현재 회사원이다. 최성은씨는 오전 9시-12시까지 엄마의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한다. 엄마 식당일을 돕는 것은 기본적인 쌀, 부식거리를 어머니께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는 제과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월가계소득 250만원에는 최성은씨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버는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남편의 인쇄업은 잘될 때는 '꽤 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에 사업을 접기 전까지 사업을 버티기 위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한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 없이 6개월 이상을 살았다고 한다.

정희영씨는 15세, 13세의 딸과 10세의 아들을 두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남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남편에게서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 지역으로 이사온지는 3년이 되었으며, 남편의 사업상 대물로 받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의 사업이 3년전부터 어려워졌으며, 2007년말에 정리가 되어 2008년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정희영씨가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아직 사업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상 한달에 한번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이진희씨는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의 부도와 같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이진희씨는 주5일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12살, 6살 여아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남편은 인채업을 하고 있고, 월2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나 일정치 않다고 한다. 주거는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정부의 교육비지원과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고 있다.

남편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연구대상자와 비교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김미선씨, 신수진씨, 오영미씨, 박경선씨 가정이다.

김미선씨는 11살 여아, 8살 남아를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4시간씩 화,수,목요일 학습지사무를 돕는 일을 한다. 남편은 회사원이지만 실적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했다.. 시댁 가까이 살고 있으며, 결혼하면서 시댁 근처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2층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은 전세를 주고 1층에서만 생활을 한다.

신수진씨는 13살, 11살의 남자아이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이다. 방2개 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순수 전업주부이다. 오영미씨는 20세의 아들과 15세의 딸, 11세의 아들을 둔 전업주부이다. 남편은 그릇도매업을 하고 있다. 생활비는 남편이 관리를 하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박경선씨는 7살, 10살의 두 딸을 두고 있으며, 남편은 전기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방2개의 빌라에 살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방2개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남편이 대기업의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연봉도 다른 연구대상 가정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경우가 임윤주씨 가정이다. 임윤주씨는 12살, 9살, 8살의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남편은 은행원으로 연봉 1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 결혼생활 12년이 되었으며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시어머니는 작년에 5년간의 투병 후에 돌아가셨는데 병간호를 임윤주씨가 맡아서 하였다. 현재 시아버님과 결혼하지 않은 손위 시아주버님과 함께 살고 있다. 첫째아이는 작년에 사립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냈다. 2층의 단독주택에서 1층은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사용하고 임윤주씨의 5식구는 2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2층 전체가 거의 아이들의 책과 전집류의 책이 가득하였고, 임윤주씨는 아이들의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육관련 회사에 등록하고 소득은 없으나 매일 1시간 반씩 출근하여 교육을 받는다고 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정이 체감하는 경제위기

주부들은 남편의 사업실패, 일거리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남편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경제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과거 윤택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왔던 것에 대한 회한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해 토로하였다. 면접자들 중 3명이 남편사업의 부도를 경험하거나 정리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림. 인터뷰 멈춤)”[한현미씨]

한현미씨는 처음의 인터뷰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보조제보자인 윤정희씨에 의하면 남편의 사업(자동차부품제조)이 매우 잘되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유지로서 살아왔다고 한다. 한현미씨 댁에는 ‘수표가 굴러다닐 정도’로 부유하였는데, 2005년부터 사업이 힘들어지고, 2008년에 결정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한현미씨는 그 충격을 아직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최성은씨도 남편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뒷감당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남편 사업이 잘될 때는 꽤 잘되었어요. 이동네로 이사 올 때 여기 산에 눌러왔다가 예쁜 집이 있어서. 아 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사서 이사오자고 해서 이사 왔어요. 지금은 아니죠.. 6개월 넘게 생활비 없이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남편이 사업 버티려고 부채도 많이 지고.. 지금은 다행히 남편이 회사도 다니고 적지만 월급도 갖다 주네요.” [최성은씨]

정희영씨의 남편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공사한 것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물로 받아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지방의 현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한 달에 한번 만나기 힘들다고 하였다.

“저는 2008년이 조금 더 살기가 나아요. 2006년에 너무 나빠져서... (아이들) 아빠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크고.. 힘들죠.” [정희영씨]

이들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소득감소, 부채증가 등 객관적인 경제적 압박이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주부역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표현했다. 세 사람 모두 소득이 없이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절박함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고 하였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나 사업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도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 일자리 불안을 표현하였다. 남편이 은행에 정규직으로 다니는 임윤주씨를 제외하고 남편의 직업이 비정규직,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가정의 소득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박경선씨의 남편은 전기엔지니어로 회사에 소속 되어있으나 파견된 비정규직이라고 하였다. 출근일이 줄어서 소득이 그만큼 줄었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의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남편이 카드회사에 다니는 김미선씨는 남편의 실적감소로 인한 급여 감소를 통해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오영미씨는 남편의 그릇도매업의 고객감소로, 남편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임윤주씨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줄이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이 비정규직이다보니, 4대보험이 하나도 안 돼요, 불안하죠. 예전에는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주말은 거의 일을 안해요. 확실히 느껴요.” [박경선씨]

“(남편이)회사원이지만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한20-30%는 줄어든 것 같아요.” [김미선씨]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이 적으니까 옛날만큼 안돼요. 애들 아빠가 그런 이야기 잘 안하는데 힘든 거 같아요. (집에 창고가 있는데) 물건도 많이 안해오고” [오영미씨]

“남편이 월급쟁이니까 경제위기가 특별히 영향은 안받는데, 그냥 돈을 더 안쓰게 되요.” [임윤주씨]

2.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정관리전략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주부들의 가정관리 전략에 대한 주요 주제(Theme)는 소득확보를 위해 일하기, 가계부 쓰기 v.s. 가계부 안쓰기, 가정관리의 중심은 자녀교육으로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4개의 소주

제가 도출되었다.

1) 소득확보를 위해 일하기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주부들은 부업, 아르바이트 등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시간, 보수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을 하고 싶어했어요. 결혼전에 직장생활을 했고, 아이들도 많이 크고, 아는 언니에게 부탁해 놓았는데 마침 일자리가 생겨서 다니게 되었고, 좋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정리하고 일하려 가면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올 수 있으니까. 일 때문에 집안 엉망되는 것은 싫은데 일주에 3번만 일하고 딱 좋아요. 버는 것은 적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만족해요.”[김미선씨]

김미선씨는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일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김미선씨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집의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어 다른 면접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소득이지만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 하였다.

경제위기로 남편의 소득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면서 주부의 소득이 가계를 꾸려가는데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경우도 있었다. 김미선씨 보다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인 이진희씨, 최성은씨는 파트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장시간을 시장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진희씨는 현재 생활에서 본인의 시장노동이 필수적이며 힘들게 일해서 버텨나가야 하는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남편의 일이) 잘될 때는 잘되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광고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광고도 안하고하니까, 200(만원)도 많이 가져올 때 그랬고 지금은 더 적어요. 내가 버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

내고, 부업도 하고, 벌어야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이진희씨]

“아침에는 엄마가게(식당)에 가서 도와드려요. 쌀이랑, 김치랑, 반찬거리랑 다 엄마한테서 갖다먹어요. 그리고 저녁7시부터 밤12시까지 빵집에서 일해요. 알바지만 나는 열심히 일해요. 애들에게 미안하죠. 애들 끼리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도 빵집일하고 나서 애들이 아빠랑 많이 친해졌어요.”[최성은씨]

최성은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와드리는 시간과 빵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하면 하루 7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을 취업주부로 표현하지 않고,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정해놓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용돈’ 형식으로 수고비를 받으며, 빵집에서 받는 급여가 월40만원이라고 했다.

최성은씨는 본인의 노동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빵집에서 (저녁7시-12시까지) 일하는 것을 계속할까 말까 무지 고민했어요. 애들 때문에. 그런데 시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 애아빠 불편할까봐, 고생할까봐..너무한 것 아니에요? 나는 진짜 힘들게 일하는데.. 그래서 그냥하기로 했어요. 너무 약올라서”[최성은씨]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의 책임과 장시간의 시장노동을 하고 있으나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미선씨가 하는 학습지 관련일은 이진희씨나 최성은씨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졌다. 이진희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사무직 노동’을 부러워 했으나 본인은 ‘배운것이 짧아서’ 그런 일을 찾을 수 없으며, 주당 노동시간이 짧아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성은씨도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짧게 하는 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글로벌 경제위

기에 의한 남편의 소득감소, 고용불안정성 증가는 주부들의 시장노동 참여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근로시간과 보수에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2) 가계부 쓰기 v. s. 가계부 쓰지 않기

가계부는 주부들에게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가정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가정의 처한 어려움을 대면하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진희씨와 한현미씨는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가정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였으며, 한현미씨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05년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가계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꼭 쓰고 있어요. 12년. 쓸 것도 없지만 꼭 써요. 힘들수록 적어야죠.”[이진희씨]

“내 것은 가계부라고 하기에는 창피한데, 그냥 수첩에다가 써요.(보여주면서) 그냥 지출한 것 쓰고 영수증 붙이고, 처음에는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사실 가계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는 진짜, 여자가 살림을 하다보면 친정식구들도 챙겨야하고 비상금 이런 것이 필요해요.”[한현미씨]

한현미씨가 가계부를 기록하기 시작한 동기가 남편에게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박경선씨의 가계부 기록 동기도 한현미씨와 유사하였다.

“결혼하자마자 안 썼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쓰는 줄 알고. 우습죠. 내가 뭐 어디다 쓴다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쓰지(기록)하고 쓰기 시작하게 지금까지예요...(보여주면서). 저는 합계는 안 내요. 그냥 그날 그날 지출한 것만 써요. 합계를 냈었는데 마이너스가 나타나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안해요.”[박경선씨]

박경선씨의 가계부는 지출한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었고, 급여통장과 생활비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매월 급여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그 안에서 현금지출, 자녀학원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는 입장에서 생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가계부에 한 달 지출에 대한 간단한 예산, 미래 계획에 대한 실천 등을 기록하는 가정관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 신수진씨는 과거에는 가계부를 기록했으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사건 이후 가계부쓰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였다. 보조면접자 윤정희씨에 의하면 신수진씨는 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꽤 윤택하게 살았으나, 몇 해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 사업과 재산을 날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임윤주씨도 신수진씨와 유사한 이유로 가계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임윤주씨는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나, 2008년에 5년 동안 병석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병원비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썼었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서.. 화나서 안 써요..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살고 있는데 쓰면 더 화나고.”[신수진씨]

“남편이 은행에 다니기 때문에 연봉은 많아요. 연봉 1억 정도.. 니 돈 내 돈 없는 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가계부는 안 써요.. 가계부도 예전에 썼었는데 내가 만원 이만원 아껴봤자, 너무 큰일들이 터지니까 이제는 돈에 대해 무감각해 졌다고 할까요. 둔감해지고 싶다고 할까요. 그냥 신경안쓰고 싶어요..”[임윤주씨]

신수진씨와 임윤주씨의 경우는 자신들은 주부로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했으나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 자신들의 노

력이 헛된 것이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가계부 쓰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3) 가정관리의 중심은 자녀교육

연구대상 주부들이 가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자녀교육을 꼽았다. 자녀교육에 중요한 부분은 학습이었으나, 자녀의 생활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개별 가정 나름의 지도를 하고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해 주부가 관리하는 부분은 학원선택, 학습지 선택을 중요하게 이야기 하였고, 주부 스스로 자녀의 학습을 돌봐주거나 문제집 등을 구입하여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국가적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은 학원비 지출을 줄여야 했던 경험을 매우 큰 고통으로 이야기하였다. 주부들은 학원비지출 감소를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약하여 생각하였다.

(1) 학원비 줄이기의 고통

한현미씨는 2008년도에 학원비지출을 어쩔 수 없이 대폭 줄인 것에 대한 속상함을 표현했다.

“아이들이 많아서 기본생활비에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것이 학원비니까 큰애가 고2인데 학원을 한 개밖에 못보내요. 둘째는 단과 7만 원짜리 하나 보내고, 셋째는 피아노학원 보내는 것이 전부이고.. 특히 큰애가 많이 원하는데 부모마음하고 애들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는)하나라도 끊기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고..”[한현미씨]

“아이들 피아노랑 컴퓨터 보내요. 학습지하구요... 학원을 못보내니까 문제집 사다가 제가 가르쳤어요. 요즘은 그것도 잘 못하지만.. 아이들이 잘 해주니까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문제집 어디 어디 풀어놓으면 되지? 물어봐요. 다행히 스스로 잘 해요. 가난이 대물

림된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해야죠, 빚도 갚고”[최성은씨]

최성은씨는 학원을 못보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다. 최성은씨가 장시간 시강노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을 현재 보내고 있는 예능학원에 계속보내기 위해서이다. 다른 아이들처럼 많은 학원을 보내지는 못해도 최소한 1-2개의 학원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학원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매우 깊게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비를 줄일테가 뻔해요., 세금내고, 식비는 거의 안들고, 김치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어떻게 해결해요, 엄마가 쌀이랑 부식거리 사주시니까, 옷도 안사요. 줄일테가 학원비인데,, 그것은 정말 최후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피아노는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영어학원을 못보냈는데 진회가 4학년 되면 영어해야한다는데 걱정이예요.”[최성은씨]

반면 임윤주씨는 소득대비 학원비지출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12살, 9살, 8살 자녀에게 영어45만원, 피아노14만원, 학습지15만원, 문화센터(논술, 종이접기 등)10만원 합계 8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우리아이(12살 첫째)는 영어랑 예능학원이외에는 안보내요. 5-6학년되면 수학, 국어 보습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애는 안보내요. 학습지 사서 풀게 하고 집에서 주로 해요. 학원을 보냈었는데, 학원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예요. 그래서 그만 다니게 하고 집에서 주로해요.”[임윤주씨]

임윤주씨는 엄마가 ‘데리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였다. 임윤주씨의 첫째아이가 보여준 생활계획표는 ‘지킬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매일 점검하여 계획표에 따라서

실천하였는지를 표시해 놓았다. 임윤주씨는 아동도서 관련 회사에서 자녀 학습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임윤주씨는 학원교육의 효과 없음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학원비 지출을 줄인 경우였다. 반면 한현미, 최성은씨는 경제적 이유로 피할 수 없이 학원비 지출을 줄이게 된 경우로 상실감이 매우 컸으며,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자녀 미래에 대한 부채감으로 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교육비 지출은 가계소득이 감소해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 비목으로 알려져 있다(양세정, 2002). 즉 소득이 감소하여도 가장 최후까지 줄이지 않는 부분이 교육비이기 때문에.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가계경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주부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습지도에 대한 자신감 결여

주부들이 가정자원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자녀교육이었고, 특히 학습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주부 스스로 아이들 학습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주부들은 엄마로서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관리자, 학습지도자로서의 주부 역할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최성은씨는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형편에서 주부 스스로 학습지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한 경우이다.

“아이들이 커가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져요. 내가 대학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학원에 보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헛갈려요.”[정희영씨]

“우리애들은 엄마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아요. 문제집 풀 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고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은 다르더라고요. 문제집 풀

때 미리 다 읽어보고 가르쳐 줘요. 애들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예요. 진희는 영어학원을 안다녀요. 고학년되면 학교에서 영어를 한다는데.. 집에서 테이프 사서 같이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최성은씨]

(3) 사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고마움과 절실함

주부들은 정부의 보육비지원과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절실함을 표현했다. 이진희씨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혜택이 중지될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다.

“애들 둘다 지원을 받아요. 성은이는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니고, 영은이는 방과후학교를 무료로 다니는데 걱정이예요. 방과후학교가 4학년까지만 받아주거든요. 내년부터는 돈을 내고 다녀요. 영광교회에서 하는 방과후학교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할지... 4학년까지만 되고 5학년은 안되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30만원씩 내고 보낼 형편도 안되고, 한달 생활비 인데..”[이진희씨]

“진희랑 민희는 방과후 컴퓨터를 다녀요. 학원보다는 저렴하니까 좋죠. 학교에서 하나씩 애들도 좋아하구요.”[최성은씨]

주부들이 시간제 일을 하는 경우 자녀돌보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이러한 가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진희씨, 최성은씨 모두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보육료지원, 방과후학교비 지원 뿐 아니라 동시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4) 자녀의 가사분담과 생활교육

자녀들을 맡아서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주부가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가사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가사일을 하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부들은 자녀들이 가사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딱하게 생각하였다.

“영은이가 성은이를 잘 들봐요.. 성은이 어린이집에서 찾아오는 것도 영은이가 해요. 성은이 목욕시키는 것은 영은이가 도맡아서 해요. 저는 영은이 없으면 못살아요. (일하러)못나가죠.”[이진희씨]

“진희가 애어른이에요.. 기특하기도 하면서 안 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니 진희가 민희를 데리고 공부도 시키고, 자기들이 밥 다 차려먹고, 빨래도 개놓고.. 진희가 민희에게 잔소리도 해요.. 불끄라고,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어떨때는 속상하기도 해요. 아이가 아이다 워야 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7시부터 일하는 것은 그만둘까 몇 번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이)아빠 월급이 적어요.. 뺑집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요. 아빠 사업 때문에 부채도 있고, 진희가 아빠가 이젠 사장이 아니라서 엄마가 일하는거지.. 그렇게 물어봐요.”[최성은씨]

주부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생활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윤주씨의 경우는 특히 아들에 대한 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편이 너무 안하니까 아들도 좀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잘 살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행히 현서는 집안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집이 넓은데 1층 2층 걸레로 미는 것은 동우가 가끔하고, 쓰레기버리는 것은 현서일로 알아요.”[임윤주씨]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해 주부들의 생각은 교육의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사일을 하게 하는 경우와 주부들이 시장노동에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사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달랐다.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자녀들이 가사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성숙하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반면 생활 교육의 측면에서 자녀에게 가사일을 맡기는 경우는 자녀가 이를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특함은 있지만,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

3. 미래의 가정에 대한 계획과 꿈

연구대상자들 중 현재의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을 갖지 못하는 주부들도 있었다. 아주 가까운 미래,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애초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가정살림을 꾸려온 것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계획의 무의미함에 대해서도 하였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죠.”[이진희씨]

“(아이들)아빠가 은행쪽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 있으면 들고 그러지 저는 그런 쪽은 신경안써요. 가게부도 예전에 썼었는데 내가 만원 이만원 아껴봤자, 너무 큰일들이 터지니까 이제는 돈에 대해 무감각해졌다고 할까요. 둔감해지고 싶다고 할까요. 그냥 신경안쓰고 싶어요.. 너무하지요?”[임윤주씨]

“꿈도 있고 그랬는데 아빠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생각도 못해요.”[정희영씨]

반면 주부들의 가게부를 통해서 가정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이를 위한 준비를 엿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가게부에 있었다.

“3년전 부터 우리가족이 1년에 한번은 꼭 여행을 가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10만원씩 가족여행비로 적금을 들어요. 10만원씩 모으면 120만원이니가 4석구 어디 갈 수 있겠다 싶어서...사실 한번 갔다.처음에 강원도..(여행에 사용못하면 어떻게 쓰세요?) 쓸

일이 생기더라구요.. 작년에는 어머님 병원비로.. 꼭 여행을 못가더라도 매월 모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구요.”[박경선씨]

박경선씨의 가계부에는 ‘어머님 환갑 30,000원’이라고 쓰여 있으며, 시어머님 칠순이 앞으로 5년 남았기 때문에 칠순을 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5년계획.. 그 이상은 생각하기 어려워져. 우리 5년 후에는 우리 진화가 중학교에 가니까 방학동이나 쌍문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학원이 그쪽에 있으니.. 아직 부채가 남아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년안에 부채 다 갚으려고요.. 애들 아빠한테도 우리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최성은씨]

최성은씨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했다.

“애들앞으로 5만원씩 저금 들었어요 20년 후에 찾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너희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엄마아빠가 못해줄 수도 있으니.. 그때 대학등록금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5만원씩 넣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꼭 넣어요, 꺾서라도 넣어요.”[최성은씨]

“결혼하고 얼마 안되서 (아이들) 아빠랑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쁜집이 나오는 거예요. 잔디밭도 넓고, 그래서 저런집에 살고 싶다고 했더니, 살게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로 마당있는집을 사서 4년전에 이사왔어요. 잔디를 갖다가 심고 하는데 잔디가 자꾸 죽대요.. 잘 안돼.하하하..(꿈을 이루고 계시네요?.. 그런편이죠..”[오영미씨]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음을 표현한 주부들은 박경선씨, 오영미씨와 같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가정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가정들이었다. 최성은씨의 경우는 많은 부채, 적은 소득, 과도한 노동시간 등 객관적인 가계경제 상태는 다른 연구대상자와 비교해서 좋지 않지만, 최근 ‘남편의 취업’이라는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표현한 이진희씨는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가정생활을 꾸려가는데 활용가능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성은씨는 일자리와 식료품을 어머니에게서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진희씨는 친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 객관적인 경제상황이 가장 불안해 보이는 가정이 이진희씨 가정이었다.

임윤주씨는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은 최성은씨 보다 훨씬 안정된 수준이었으나, 최근 경험한 가정의 경제적 압박사건(시모의 병치료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도록 한 경우이다. 임윤주씨와 정희영씨의 공통점은 현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임윤주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은 높으나 시부, 시댁가족들과의 동거, ‘네것 내것 없는 집안의 풍습’으로 현재 자신의 가정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다. 정희영씨도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며 사업의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하나 얼마큼 정리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만 ‘빚을 내서 주는지, 벌어서 주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초국가적 경제 위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산층을 위협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정성의 증가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서민·중산층 가정의 위기극복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스스로를 서민가정이라 생각하는 가

정을 대상으로 주부들이 경험하는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가정자원관리적 대처전략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출발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나타난 부정적 결과(양극화심화, 비정규직 증가 등)를 개별가정이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의 경제위기가 개별가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자의 염려에서 시작되었다. 서민가정의 주부들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경제위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가정자원관리의 맥락에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주부들은 경제위기를 남편의 실직, 사업실패, 일거리 감소 등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감소, 경제적 불안감 증가, 소비지출의 구조변화 및 감소로 경험하고 있었다. 주부들의 가정자원관리 전략은 일자리 찾기, 가계부 쓰기와 쓰지 않기, 자녀교육의 중요성 확인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사업실패, 실직 등 주소득원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정과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큰 경제적 위기사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가정자원관리 전략은 다르게 나타났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양육이었는데, 일을 하는데 따르는 자녀보육비의 문제와 어른의 보호 없이 자녀들끼리 장시간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가계부는 가정자원관리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부들은 가계부에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 뿐 아니라 가정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부들은 가계부를 더 열심히 기록하기도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위기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경제적 압박사건을 겪은 경우 가계부 쓰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 주부들이 가정자원관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녀교육으로 나타났다. ‘학원’ 또는 ‘학습’을 강조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이 원하는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것, 주부가 판단했을 때 영어, 예능 등 또래의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으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대상 주부들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유지해 왔거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주부 나름대로 극복했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 가정의 객관적인 재정상태는 ‘마이너스 가계부’, ‘아직 정리해야 할 부채’가 있는 부정적인 상태였으나 넉넉하지는 않아도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가정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힌 주부들은 자신이 경험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였다.

본 연구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 비추어, 예방·맞춤·통합·수요자 중심·체감성이 강조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의 일레라 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체감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책의 수혜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정책의 수혜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생활에 자리한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쳐 생산된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이야말로 정책 시행에 따른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대상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관리자로서 초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른 가정의 경제 상황 악화와 미래의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언사로 표현하였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에 비추어, 정책의 수요자인 이들의 요구 사항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와 방과후교실 수업료 지원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지원과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교실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 되고 있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정부지원으로 방과후교실에 남아서 돌봄을 받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지워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는 2009년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둘째아이는 초등학교1학년이 되는 가정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은 혼자 집에 있어도 되는 나이인가’라는 말로 정부의 방과후교실 지원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표현하였다. 주부가 파트타임일로 한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50만원이고, 한달 생활비가 30만원이라는 가정에서 자녀를 방과후교실에 맡기기 위해 20-3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들 가정에서는 이미 부모 모두 일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투입하고 있고, 더 이상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이들을 어른이 없는 집에 방치하거나 한달 생활비의 지출 부담을 안고 자녀를 방과후 교실에 맡기거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녀교육이었고, 힘든 여건을 버텨나가게 하는 희망이 자녀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서민가정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각각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주부들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원했다.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꾸준한 일자리,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잠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표현될 수 있다. 남성1인 소득자로서는 가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취업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주부들은 많은 시간을 시장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주 소득원인 가장은 남편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시장노동은 가사노동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사노동 중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자녀양육과 교육으로 자녀양육을 방해하지 않는 일자리 또는 자녀양육이 제공되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상황에서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의 실직 등 갑자기 맞게 되는 가정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가정자원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지원되어야 한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Deacon과 Firebaugh(1989)의 체계적인 접근에 의한 가정자원관리 모형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가정자원의 개발, 자원관리의 계획, 수행, 평가의 과정에는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나 미시-거시체계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개별가정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완만하게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자원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에 관한 정보력의 부재를 해결할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이 곧 가정의 희망인 이들 가정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주부이자 어머니인

가정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정보력의 부재가 자녀의 미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현재 자녀 교육에서 느끼는 계층 간 상대적 소외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남들만큼 교육 시키지 못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스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이어져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더욱 고통스럽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정부 지원으로 고용하여 이들에게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각자의 가정이 보유한 가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시종일관 관찰되었던 것은 가정 경제가 직접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이었다. 이러한 불안은 전지구적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이나 어두운 경기 전망에 따른 막연한 불안이 아닌 이들 가정을 직접 압박하는 소득감소, 사업실패, 일거리 감소와 같은 직접적이고 긴박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다. 이들 가정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나 그에 따른 이들의 불안감과 비교하여 장시간의 노동 감수, 자녀에 대한 교육 열,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 등으로 나타난 이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우는 여러 가지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함은 물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고용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의 수입이 최저선일지라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계획이란 무의미하다는 절망 섞인 토로에 정책 입안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인숙, 송요숙, 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IMF 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2) 김양희, 박인숙, 윤정혜, 이승미, 정현숙, 최규련, 최현자(1999). 가정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93-104.
- 3) 김혜연, 김미성(2001). 경조비에 대한 의식 및 지출 변화-IMF 경제위기 이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 65-80.
- 4) 박상우, 김성환(2007).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경제연구 25(3), 177-196.
- 5) 박종규(2008).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7(50), 3-7.
- 6) 성미애, 송혜림(2008).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본 새 정부의 가정정책 : 분석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14.
- 7) 양세정(2002).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경제구조 대응행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81-93.
- 8)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9) 이기영, 윤미립(2001). 경제위기 하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생산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73-87.
- 10)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 11) 이성균(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4), 119-146.
- 12) 이연숙(1998).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 :

- 진단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39-51.
- 13) 임인숙(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겨울호), 1105-1127.
- 14) 정순희, 최혜경(2000). 가정생산성과 시장생산성의 관계분석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력 증진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45-60.
- 15) Auh, S., Cook, C., Crull., & Fletcher, C. (2006). Children's housing environments : Welfare families in Iowa.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 (2), 96-117.
- 16)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52(3), 643- 656.
- 17) Deacon, R. & Firebaugh, F.(1989).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llyn & Bacon.
- 18) Hraga, H, Lorens, F. O. & Pechacova, Z. (2000). Family stress during the Czech Transform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520-531.
- 19) Liker, J. K. & Elder, G. H.(1983). Economic hardship and marital relations in the 193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343-359.
- 20) Morris, E. W., & Winter, M.(1975).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9-88.
- 21) Taylor, S. & Bogdan, R.(1998).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nada : John Wiley.
- 22) Volker, C. B. & Winter, M.(1989). Primary household production of food, food expenditures and reported adequacy of foo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 32-46.
- 23)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24) Winter, M. & Wolf, M. J.(1989). Satisfaction with current commuting expense as related to the relative fuel efficiency or a desired automobile purchas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3, 79-89.

- 접수일 : 2009년 1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2월 19일

<부록>

연구대상자

이름	연령 (만)	학력	직업 (부업)	결혼 기간	남편 직업	남편 연령	월 가계소득	자녀수	가족수
임윤주	37세	고졸	전업주부	12년	은행원	44세	750만원	3명	7명
김미선	37세	대졸	학습지사무 주3회4시간씩	10년	회사원	39세	200~300만원	2명	4명
한현미	45세	고졸	전업주부	19년	사업	46세	250만원	4명	7명
신수진	42세	초대졸	전업주부	13년	정비사	45세	300만원	2명	5명
이진희	41세	중졸	하루6시간 주5일	13년	인쇄업	41세	200만원	2명	4명
박경선	37세	고졸	전업주부	10년	전기엔지니어	41세	250만원	2명	4명
최성은	37세	고졸	하루5시간 주5일	13년	회사원	39세	250만원	2명	4명
정희영	37세	고졸	전업주부	16년	건축업	39세	300만원(생활비)	3명	5명
오영미	41세	중졸	전업주부	20년	그릇도매업	43세	300만원(생활비)	3명	5명
윤정희	57세		예능학원운영	지역에 30년 거주				주요 정보제공자	